

민주 광주시장 배심원제 이번주 고비

지역 국회의원 11일 논의, 설이후 입장 전달

모바일 투표 가미 완전국민경선제 가능성도

이번 주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주에 광주 국회의원들이 회동을 갖고 중앙당에서도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7일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광산 갑)에 따르면 오는 11일 광주 국회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광주시장 공심위 구성 등 지방선거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갖는다.

또한, 광주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동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뒤 설 연휴 이후 다시 회동을 갖고 최종 입장을 정리, 중앙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도 광역단체장 경선 방법과 관련하여 중앙당 공심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지역 여론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국회의원 대부분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와 관련,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수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광주시장 후보를 200명이라는 소수 인원이 선정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지역 외부 인사라는 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도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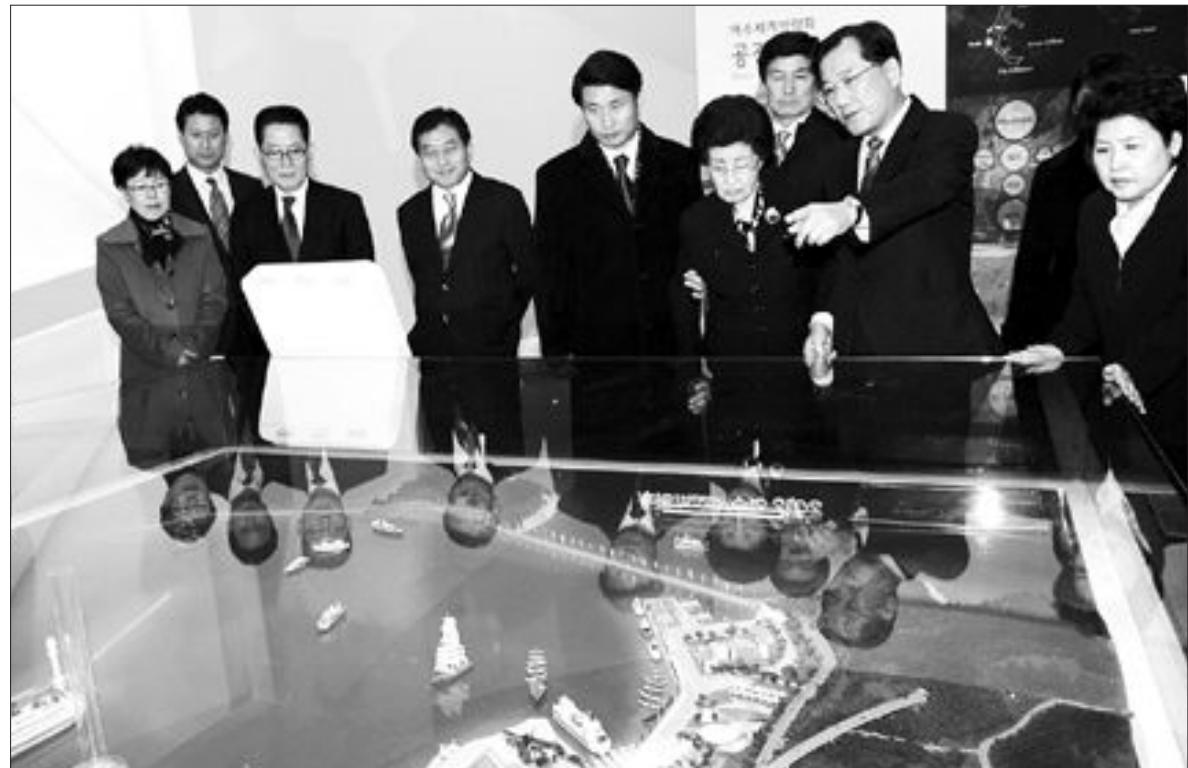
이에 반해, 강기정, 최재석 의원 등 당내 주류 소장파 의원들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강력하게 나서고 있고 지도부에서도 지역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선거 경선

방식을 놓고 당내 분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 방식으로 완전 국민경선제가 전격 도입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여론조사, 시민선거인단 등의 다양한 방식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동원의 부자유만 적절히 막는다면 전국적인 흥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희호여사 엑스포 홍보관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7일 여수 엑스포 홍보관을 방문해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동영 복당' 역학구도 변화 예고

민주당 지도부, 10일 당무위서 승인 지방선거 공천 싸고 계파 갈등 우려

지난해 4월 재보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10개월 만에 친정으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역학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8~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 복당을 당무위원회를 승인하는 방침이다.

비록 친노 및 386 일부가 정 의원의 복당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복당의 명분을 뒤엎을 수준을 못 된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10일 정 의원의 복당을 확실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지방선거를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정 의원의 복당은 지방선거 공천 등 당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역학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 의원이 비주류의 구심점으로서 영향력 복원에 나설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세균 대표와 친노·386 중심의 당권과 주도권을 쥔 주류와 비주류 간 긴장 관계가 더욱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 의원은 당분간 몸을 낮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7일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의 승리와 지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당의 부여하는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 측도 정 의원을 자극하기보다 그의 복당을 계기로 정세균 대표의 통합의 리더십을 부각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같은 전복 출신으로, 잠재적 대선 후보 경쟁자인 두 사람을 정점으로 한 주류-비주류 간 격차는 시간문제라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더욱이 순화규 규준 대표도 조만간 정세균에 복귀할 것이 점쳐지

고 있어 지방선거 전에 차기대선 후보 경쟁 구도로 예상되는 '정(丁)-손(孫)-정(鄭)'의 3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우선 계파 소속 후보들을 공천하기 위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호남은 물론 전국의 지방선거에 계파 소속 후보들을 내면서 차기 전당대회 및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바닥조직을 다지는 작업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에서도 시장과 지사 후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원 후보들까지 상당수 인사가 이들 3명의 계파 수장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향후 전당대회 및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약속하는 상황이 발생하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의원의 복당이 자칫 공천 갈등 등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며 "주류는 물론 이직 정 의원 측도 자중하는 모습으로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親朴도 '정총리 해임안' 동조론

야당 10일 이후 해임안 제출... 이번주 세종시 정국 최대 뇌관

설 연휴를 목전에 둔 이번주가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與野) 대립 정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설 연휴를 장악하기 위해 이번주에 대대적인 공방전과 홍보 행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이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내에서도 해임건의안 동조론이 퍼지고 있어 이번주 친이(친이명박)와 친박 간 갈등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10일 이후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제출 시기를 놓고 조율 중이다.

강경파는 대정부질문이 끝나자마자

제출하자고 주장하지만 설 연휴 이후 민심의 풍향을 보고 결정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 총리가 세종시 밀어붙이기로 국론을 분열시킨 데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정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른 시일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207명) 과반수(149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이 127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친박계 의원 50~60명의 절반만 가세해도 통과될 수 있다.

실제로 친박계 일각에서 해임건의 동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에 대해 친박이 조직적으로 찬성할 경우 한나라당은 분당의 위기까지 치달을 수 있어 개별 의원에게 찬반을 맡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친박계는 또 8일부터 사흘간 다시 이어지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논박하고, 당내 토론회에도 참여해 '논리대결'을 펼치는 등 공세 모드로 전환할 방침이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이번주가 세종시 정국 1단계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으로 보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수정안의 문제점을 더욱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의원인 친이계는 이번주 세종시 조기 당론 채택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기류 속에 여권 내부에서 세종시 수정 문제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번주 내에 여야 원내대표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광주 지방선거 예비후보 207명 접수

기초단체장 23명·광역의원 69명·기초의원 115명

민주당 광주시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예비후보 제1차 자격심사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207명의 후보자가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기초단체장 23명 ▲광역의원 69명 ▲기초의원 115명이 접수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남구가 10명, 광산구 7명, 북구 3명, 동구·서구 각 2

명, 동구 1명이 접수를 마쳤다.

남구의 경우 애초 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던 김만근 남구의회 부의장이 광역의원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정범석(민주당 남구지역위원장), 강원구(전 관광협회 중앙회장), 박성용(전 전남도의원) 등 3명이 남구청장 예비후보로 새롭게 얼굴을 내밀었다.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해온 김환

규 전 북구 부구청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날 '개인적 사유'를 들어 불출마를 선언했다.

광역의원의 경우 남구가 3개 선거구에 14명이 접수해 평균 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 서구가 4개 선거구에 18명이 접수해 평균 4.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한, ▲동구(2개 선거구) 6명 ▲북구(6개 선거구) 17명 ▲광산구(4개 선거구) 14명이 접수했다.

기초의원의 경우 남구가 30명의 지

원자가 풀려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동구에 14명, 서구 20명, 북구 23명, 광산구 28명의 후보자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광주시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김동철)는 오는 11일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은 오는 19일부터 선관위에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1차 자격심사에 신청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은 조만간 진행될 2차 자격심사 신청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为商业领导者
所开设的最高的
教育课程

清华大学
Tsinghua University

世界性中国名门大学!! 国际性人际关系网络!!

中国 清华大学 最高经营者课程 募集

세계적인 중국 명문대학!! 칭화대학의 명품 CEO(차장) 양성도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학 TCE 한국 캠퍼스 TEL: 02-596-8900, 1544-8378 FAX: 02-563-7733
E-MAIL: webmaster@tsinghua.co.kr

http://www.tsinghua.ac.kr